

정부 가상화폐 과세 논란...투자자들 반발



정부, 가상화폐의 실체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법이나 규정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
내년부터 가산 자산 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방식, 조세원리·형평성 맞지 않아” 지적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이익을 남긴 사람들이 생기면서 가상화폐가 젊은 재테크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만으로 인증이 가능해 접근성이 쉽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이름도 생소한 알트코인에 올인하는 사람도 많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 거래량이 3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는 알트코인이 94%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복제하는 식으로 만든다 보니 종류가 셀 수 없이 많고 부실한 것도 부지기수다.

빌리 마커스와 잭스 팔머가 비트코인 열풍을 풍자해 장난으로 만든 ‘도지코인’이 대표적이다. 발급량을 엄격하게 제한해 채굴에 어려움을 겪는 비트코인과 달리 도지코인은 발급량이 무한대여서 전세계적으로 1분에 1만

개 정도가 생산된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지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

하지만 머스크의 입김에 따라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알 수 없고 보유 구조 또한 부실한 편이다. 한 명의 익명 투자자가 총량의 28.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한 투자가 늘고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대책은 없다. 가상화폐 상장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한다. 거래소는 수수료만 벌어들이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불확실한 가상화폐도 무분별하게 상장하고 정보 제공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이나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

는다면서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로또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이 조세 원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에 준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확보와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과세와 규제를 통해 업계 전체가 좀 더 투명해져 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대되는 한편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경우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광주 동부소방, 갑질없는 공정한 직장문화 선도

광주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최근 내부청렴도 향상을 통한 청렴1등급 달성과 갑질근절 및 예방을 위해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만들기’ 캠페인 선언식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갑질 NO!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선언문’을 낭독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무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인격이나 외모 비하와 폭언·폭행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식 서장은 “캠페인을 통해 동부소방서 공직자들에게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갑질 문화가 근절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완도해경, 이달의 ‘최고해양경찰서’ 땅끝파출소장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정박선박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만능노즐 개선과 유관기관(소방·경찰·민간해양구조대) 협업을 통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 땅끝파출소장 박석철 경감을 4월 최고 완도해양경찰서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의 ‘최고 해양경찰서’에 선정된 완도해경 땅끝파출소장은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동료들의 귀감이 되어왔으며 이번 4월에 △분사 사거리 증가를 위한 만능노즐 길이 개선 △소방과 협업을 통한 항포구 소화구 8개소 추가 설치 협의 △땅끝파출소 주관 민·관 합동 화재 진압 훈련 등의 적극행정을 펼쳐 ‘최고의 해양경찰서’로 선정,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평소 꾸준한 민원업무 연구와 자기계발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동료 선·후배에게 모범이 된 베테랑 해양경찰 공무원이다.

박석철 완도해경 땅끝파출소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정박선박 화재 사고 소식을 접하며 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화재진화와 만능노즐 길이 개선, 민관 합동훈련을 계획·실시하였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나주경찰,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김상철)는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3~4월)에 신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샌드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중·고 23개교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과 ‘빛과 미래창작소’ 샌드아티스트의 합동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빛과 미래를 이용한 공연 및 퀴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상철 나주경찰서장은 “기존 전달식 교육이 아닌 학생 친화적인 방법을 통한 학교폭력 자각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함평경찰,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문제해결 경찰활동 추진

함평경찰서(총경 정환수)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앞서서 주민의 치안요구에 맞춘 선제적인 문제해결 경찰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일 지역안전순찰 중 마을주민에게 “마을폐가에 위치한 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남자가 있어 무섭고 붕괴우려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불안하다”는 지역사회 문제를 청취하였다.

이에, 범죄예방진단 실시 결과 외지인이 귀농하여 건강상 이유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것을 확인, 주민 불안감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점을 파악 한 뒤 합평군과 연계하여 철거를 추진하고 청소년 비행·붕괴우려 폐가에 대해 지금까지 4개소를 철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광양=심종섭기자

‘방역 최전선’ 인천공항검역소도 뚫렸다...직원 5명 확진

지난 26일 1명 발열 증상으로 검사...다음날 확진
검역소 직원 76명 코로나19 검사...4명 양성 판정

방역 최전선인 인천공항검역소 직원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역소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인천시와 인천공항검역소 등에 따르면 검역소 직원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역소 직원 1명이 발열증상을 보이며 지난 26일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역소는 직원 총 76명을 대

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4명이 추가 확진됐다. 28일 오후 현재 1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은 모두 같은 팀원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지는 서울 2명, 인천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중증환자는 없다고 시는 전했다.

검역소 관계자는 “직원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



진자 발생 후 신속하게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5명 이후에 추가 확진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립 인천공항검역소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외 입국객의 코로나19의 검사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